

단군릉을 발굴하고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립장에서 심화시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오 철 훈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력사연구의 가장 정확한 주체적방법론을 제시하시고 단군릉을 발굴하도록 우리 학자들을 일깨워주시였으며 단군 및 고조선력사를 과학적으로 연구체계화하도록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82(1993)년 10월 20일 단군릉개건관계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단군릉개건방향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단군릉에서 단군의 유골이 발굴되고 뼈측정년대가 5 011년전으로 확정된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단군릉발굴이 가지는 의의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단군릉에서 단군의 유골을 발굴하고 단군이 반만년전의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을 고증한 것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 발상지를 확증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성과입니다. 단군릉발굴사업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고 우리 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것을 뚝뚝이 자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일성전집》 제94권 139~140페이지)

우리 선조들은 벌써 반만년전에 《조선》(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동방에서 가장 이른시기에 문명시대에 들어섰으며 투쟁과 창조의 력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고조선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의하여 세워진 우리 민족사에서의 첫 고대국가였다. 고조선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노예소유자사회의 력사가 시작되고 우리 민족은 당당히 국가시대의 력사를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조선민족의 형성과정의 더욱 촉진되고 그후 반만년이라는 장구한 력사적기간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단일민족으로서의 혈통을 깨끗이 이어올수 있었다.

지난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으로 하여 단군을 신화적존재로 보았으며 단군조선의 력사는 전설로 취급되어왔다. 력사학계의 적지 않은 학자들까지도 단군에 대하여 신화적인 인물로 단정하였으며 실재한 원시조를 찾는 문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5천년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내는것을 민족의 존재, 존엄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일찍부터 민족의 원시조해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단군릉발굴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81(1992)년 9월 일군들에게 단군에 대한 자료가 비록 신화적인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학자들이 단군과 관련한 유적들을 다 찾아내고 똑똑히 고증하여 단군전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말살된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단군의 무덤을 발굴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에 의하여 주체82(1993)년 1월 비로소 강동군 강동읍

에 위치하고있는 단군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발굴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단군릉은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무덤으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실증해주는 귀중한 역사유적이다. 단군릉은 강동읍의 서북쪽으로 좀 떨어진 대박산의 동남쪽경사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릉의 동북쪽에는 아달산이 있고 릉의 앞에는 넓은 벌이 있으며 남쪽으로 치우쳐 수정천이 흘러 대동강에 합수된다. 단군릉이 자리잡고있는 부락을 단군동이라고 하였고 그 동쪽마을을 아달동이라고 불렀다.

단군릉은 돌로 쌓은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칸은 반지하로 되어있고 주검칸과 무덤길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이다. 무덤칸의 방향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주검칸의 크기는 동서 273cm, 남북 276cm이며 바닥에서 천정고임5단까지의 높이는 160cm이다. 주검칸의 바닥에는 2개의 판대가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다. 벽체는 돌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만들었으며 천정은 3개의 단으로 삼각고임을 하고 그우에 뚜껑돌을 덮었다.

오래전에 일제가 야만적으로 도굴해버린 무덤이어서 유물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뼈와 금도금한 왕관조각을 비롯하여 일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현대적인 측정기구에 의한 감정결과 발굴된 사람뼈가 5011년이전의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고 그 주인공이 단군과 그의 안해라는것을 립증하는 여러가지 자료들도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앞에는 주체25(1936)년에 단군릉수축기성회가 강동일대 유지들로부터 모은 기금으로 설치하였던 무덤표식비, 상돌, 돌사자 2개, 정자각들이 있고 동쪽에는 단군의 기적비가 세워져있다.

기적비비문에서는 단군을 거룩한 신인으로 묘사하면서 단군에 의하여 우리 조상들이례의도덕을 갖춘 문명인으로 개명되었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고 고조선의 건국시조이며 우리 선조들이 오랜 옛날부터 강동에 있는 단군릉을 실재한 단군의 무덤으로 간주하고 제사지내왔다는것은 옛 문헌들에도 명백히 기록되어있다.

3세기경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중국의 역사책 《위서》에서는 《지난간 2천년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단군이 고조선국가를 처음 세웠다는것을 밝히었다.

고려시기 역사책인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을 고조선의 건국시조로 보고 《고조선》이란 표제아래 《고기》의 단군신화와 《위서》의 단군 기사를 소개하였으며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에서 단군을 우리 나라 개국시조로 보고 그가 《조선》(고조선)을 세운 사실을 서술하였다.

1392년에 레조 전서 조박은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임금》이라고 하였고 학자 권근(1352-1409)은 《우리 동방에서 나라를 세운것은 단군의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1412년에 레조에서 태종왕에게 올린 글에서는 《단군은 사실 우리 동방의 시조》라고 하였다.

단군조선의 역사가 정사책에 처음으로 실린것은 《고려사》부터였고 우리 민족사서술을 《단군조선》부터 시작한것은 1484년에 편찬한 《동국통감》부터이다. 그후 조선봉건왕조 전기간 국사의 첫머리에서는 의례히 《단군조선》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단군이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을 세운데 대하여 기정사실화하였다. 어느 한 역사기록에서는 단군을 고조선의 왕으로 쓰고 단군왕대를 47대까지 서술해놓기도 하였다.

단군의 무덤에 대한 역사기록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동현에 2기의 큰 무덤이 있는데 그 하나는 현의 서쪽 3리에 있으며 둘레가 410자이고 민간에서는 단군묘로 전한다.》라고 써여있다. 1626년에 편찬된 《강동지》에도 이와 똑같은 기록이 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1697년 7월 14일에 숙종왕이 강동의 단군묘와 평양의 동명왕묘를 해마다 수리할것을 상주한 관리의 제의를 승인하였으며 그후 영조왕은 1739년과 1763년 두차례에 걸쳐 평양감사에게 단군묘를 잘 보수관리할데 대한 지시를 준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정조왕이 1786년 8월 9일 평양감사에게 단군묘를 순시한 다음 부근의 백성들로 묘지기를 정하고 강동원은 봄과 가을에 묘를 직접 돌아보는것을 제도화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이것은 강동땅에 단군묘가 있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해왔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지난 시기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 고려시기의 역사책들과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수많은 역사문헌들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사실이 적혀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단군묘에 대한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단군묘로 전해져오는 무덤을 조사발굴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단군을 전설적인 인물로만 여기면서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단군릉을 발굴하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반만년민족사를 세상에 빛내여주시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단군릉발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단군과 고조선연구를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조선건국년대와 단군의 출생지, 고조선의 수도문제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조선민족의 반만년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도록 하시였다.

당시까지 학계에서는 단군이 중국의 료하지방에서 출생하였고 고조선의 수도를 이지방의 왕검성에 정했을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고조선의 건국년대도 이웃나라의 역사기록을 교조적으로 인용하여 쓰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동북지방에서의 자신의 체험과 풍부한 역사자료들을 과학적근거로 제시하시면서 단군의 출생문제, 고조선의 수도문제 등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고증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군릉의 발굴은 고조선의 수도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를 중국동북지방이 아니라 바로 평양지방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받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심화시킨 결과 단군에 의하여 세워진 고조선의 건국년대는 B.C.30세기초이며 고조선이 존재한 약 3000년간의 중심지, 수도는 바로 평양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평양은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우리 나라 고대문명의 중심지이며 단군이 출생하여 활동한 민족의 성지라는것이 구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학계에서 달성한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단군과 고조선력사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전민족적범위에서 조직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주체82(1993)년과 주체83(1994)년 2차에 걸쳐 평양에서는 전체 조선인민들과 세계력사학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성황리에 조직진행되었다.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에 첫페이지를 차지하는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가 새롭게 과학적으로 정립되게 되었으며 우리 조선민족은 세계5대문명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으로 세상에 널리 이름떨치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옹바로 해명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고조선으로부터 련련이 계승되어온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를 빛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는 단군릉을 발굴하고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조선민족으로서의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